



▲ 신입생들이 3월 5일~6일까지 진행된 '대학생활과 자기계발'에 참여한 후 잔디마당에서 함께 하였다. 내 삶 속에 가장 알찬 밑알은 이곳 KBU에서 반드시 이뤄낼 것을 다짐해 본다.

MAR 2025

VOL. 275

KÓKKOS3

밀알훈련센터 앞 국도 47호선 확장공사

현 2차선을 폭 20m 4차선 도로로

2028년 완공 목표,
센터의 차량, 보행자 안전성 확보

우리 대학의 포천 밀알훈련센터 앞을 지나는 국도 47호선 도로의 확장공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공사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과 강원도 철원군 서면을 잇는 2.97km 구간의 도로를 현재 2차선에서 폭 20m의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공사 기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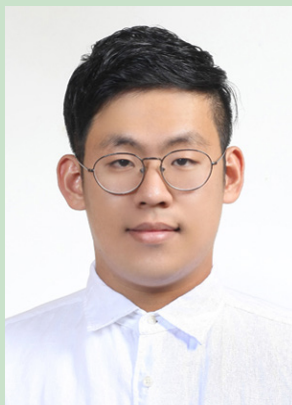
이 확장공사 계획에 우리 대학 땅 20,376㎡ (6163평)이 수용 예정이며, 수용에 따른 토지 보상에 대한 기대도 크다. 전체 사업비는 485억7천400만원이며 그 중 토지 보상비는 68억 6천100만원이다. 25년과 26년에 보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공사의 실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다. 센터 앞 도로는 기하구조가 불량하고 군 차량 및 전차(戰車)의 통행도 빈번한데 반해 도로의 폭은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다. 특히 강원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사가 심한 내리막이라 밀알훈련센터의 차량 출입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한 구간이다. 이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센터 입구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며 센터 출입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학교로부터 센터까지의 통행시간도 단축 된다.

공사 주관처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담당자는 지난 2월 26일 우리 대학을 비롯 이 국도 확장공사로 토지가 수용되는 소유주들을 초청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담당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소유주들과 토지 수용과 관련 개별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협조를 당부하였다.



믿음의 경주 (빌 3:13~14) 반우형 목사(교목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고백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한해였을까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이 지나갔고 새로운 한 해가 왔

습니다. 과거가 어떤든 과거는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과거를 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25년 우리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도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주가 마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의 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학기 맞이 시설 환경 새 단장

AI융합설계실
KÓKKOS로 정체성 표방도

2025학년 봄학기 개강에 맞춰 교내 시설개선 공사가 활발히 이뤄졌다. 새롭게 신설된 AI융합학부가 사용할 AI융합설계실의 리모델링을 마쳤고 갈멜관 305호도 신형 책걸상 설치를 앞두고 있다. 복음관 도색과 1층 이중창까지 바뀐 시설물을 돌아봤다.

갈멜관

갈멜관 지하 1층의 AI융합설계실(공용실습실)은 조별 토의가 가능한 그룹별 책걸상과 모니터가 4면 공간에 배치됐고 스마트형 LED모니터(사이니지)와 교탁, 무선네트워크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됐다. 복도 진입 출입문을 제거해 출입도 여유로워졌고 환기 용량까지 확장돼 쾌적함이 크게 개선되었다. 중규모 강의실로 사용해 온 305호의 낡은 책걸상을 모두 철거했고 개강에 맞춰 최신형 강의 테이블로 설치된다.

복음관 도색 및 샷시 교체 기타

복음관 1층 외벽 창문과 내부 복도의 창을 전면 교체했다. 1층은 행정 부서가 자리하고 있는데 전면 외벽과 복도 창을 단열효과와 소음 기능이 탁월한 이중창으로 교체하였다. 전면의 돌출된 세로형 벽면에는 딥블루 계열의 우아하고 세련된 색상이 시선을 끈다. 또한 5층 최상단에는 대형 영문 KÓKKOS (한 알의 밀)를 부착해 밀알관 상단의 학교 로고와 심볼이 완전체가 되면서 세계지도, 12 제자상을 지나 야곱의 사다리에서 십자가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표방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실 8곳의 전자 교탁과 빔 프로젝터를 최신형 스마트 형태로 교체했고 전체 강의실 의자의 바닥 면을 대상으로 고온 스팀 살균 작업을 마쳤다. 이밖에 일립관 1층 중앙 입구의 블록담에는 유명한 화가 몬드리안(1872~1944 네덜란드)의 삼원색을 형상화한 시각이미지로 재현, 변화와 도전의 신선함을 갖도록 하였다.



▲ AI 융합설계실



▲ 일립관 1층 몬드리안 이미지



▲ 복음관 5층 KÓKKOS

“주의 말씀은 ... 내 길의 빛”

2025 학년 FT
3월 17~19일 교내에서

주강사,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



▲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2025학년도 ‘말씀의 해’를 맞아 성서공동체가 말씀에 따른 밀알정신 습득과 선후배 상호 간 협력에 의한 사회성 등을 높여줄 FT(Faith Training)가 3월 17일~19일까지 교내에서 개최된다. 주제 성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학부생들은 18일(화) 오전 9시 개회 예배, 총장 권면사를 시작으로 문화공연과 공동체 훈련(Ⅰ, Ⅱ, Ⅲ) 총학생회와 동아리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19일까지 진행된다.

FT의 주 강사는 NGO 기관인 한국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18일)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19일), 특별강사로 김동해 원장(명동성모안과병원)이 말씀을 전한다. 참석자 전원에게 도시락이 제공되며 대학원은 행사 첫날 충신대 김지찬 교수가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FT 참석은 재학 중 강의과목과 채플에 반영된다.

2025학년도 FT는 다음과 같다.

▲ 일시: 2025년 3월17(월)~19(수) ▲ 장소: 교내 밀알관 로고스홀 외 강의실

▲ 대상: 학부생과 대학원 전체 및 교수와 직원

2024 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 학부 215 명, 대학원 59 명

최정권 총장
‘우리 대학은 하나님이 세운 대학’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학부 70회, 대학원 37회)이 18일 개최되었다.

학부에서는 215명(성서학59, 사회복지학 41, 영유아보육학32, 컴퓨터소프트웨어학 33, 간호학 50명)이 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대학원은 김병수(실천신학 전공), 김진태(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원우가 철학박사를 취득하였고 57명이 전문 석사학위를 받았다.

학부 수상자는 우민영(사복)등 5명이 총장상을, 채경훈(사복) 학우가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다니엘(성서) 학우는 스룹바벨상(BRC 4년 연속 참여)과 에스라상(성경 다독자)을 수상 2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대학원 수상자는 총장상 김병수(일반대학원 신학), 대학원장상 양한나(일반대학원 간호) 등 4명, 이사장상은 최경애(신학대학원) 원우가 받았다.

예배에서는 한규삼 목사(충현교회 담임)가 ‘전문가의 길로 나아가는 로드맵’(딤후 4:12~16)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문가는 기초에 충실하고 말씀 안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전도자가 되라”고 설교했다.

최정권 총장은 “우리 대학에는 3가지의 가치가 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운 대학이다. 설립자가 말한 이 고백 때문에 모진 70년을 이겨낼 수 있었다. 둘째, 복음전도자를 양육한다는 본질적 가치가 있고 셋째는 신앙적인 삶의 추구라는 가치가 있다. 졸업생들은 이 같은 가치를 기억하고 후배를 키워주는 졸업자들 되라”고 권면했다.

강우정 이사장이 “졸업자들은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최고 일꾼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고 4년간 익힌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섬김에 힘쓰면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승리자들 되라”고 격려했다. 이철희 이사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기도, 김동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29회)은 성서대 동문의 자긍심을 잊지 말자며 후배를 환영했다.

2025 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학부모들
“신앙 지도와 음주 흡연 금지에
강한 신뢰”



▲ 최정권 총장

2025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가 22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열려 예배와 주요 보직자 및 학교 소개와 학과별 만남 순서로 이어졌다.

최정권 총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학은 작습니다. 작아서 교수·학생 간 인격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공동체성을 크게 향상해 갑니다.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도 82.5%가 만족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 최고의 전공인으로 양육해 갈 것입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이에 앞서 박태수 교목실장은 “우리 대학은 밀알 정신이 교육의 근간이라며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전공별로 교수와 만나 전공의 비전과 취업률 현황 및 여러 학사 정보 등을 나누었다.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에는 58가정 71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다. 작년에는 48가정 66명이 참석하였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대학을 위하여 63구좌를 후원해 주었다.

올해 입시 신입생충원율 100% 달성

새 얼굴 273 명
신입생 249 명, 편입생 24 명

우리 대학은 2025년 신입생모집에서 또 다시 충원율 100%를 기록 10년 전통을 이어갔다. 새 얼굴은 신입생 249명(정원내 228, 정원 외 21)과 편입생 24명으로 모두 273명이다.

올해 신설된 AI융합학부 3개 전공(컴퓨터소프트웨어 전공, 인공지능 전공, AI휴먼서비스융합 전공)에는 55명이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자유전공'으로 입학하였으며 학우들은 학업을 진행하면서 교수들과 상담을 통해 전공을 결정하게 된다. 신입생 249명(정원 외 포함)을 전공별로 보면 성서학과 61명, 사회복지학과 38명, 영유아보육학과 37명, 간호학과 52명, AI 융합학부 61명이다. 편입생 24명은 성서 8, 사복 7, 컴소 2, 간호 7명이다.

휴학 중이던 학우들의 복학도 지난해에 비해 활발하다. 복학예정자 140명중 77명(55%)이 복학하였으며 재 입학생 5명이 성서공동체로 합류하였다.

대학원 신입생은 81명 모집에 48명이 입학하였다. 일반대학원 모집 20명에 18명 입학, 신학대학원 37명에 25명, 사회복지대학원은 7명 가운데 4명이, 교육대학원은 17명 정원에 1명이 입학했다. 미 충원된 인원은 2학기에 모집하게 된다.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고시 100% 합격

우리 대학 간호학과 졸업생 49명 전원이 지난 1월 24일 실시한 제65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였다. 간호학과 학우들은 풍부한 전문 실무역량을 겸비한 교수진과 우수하면서 강도 높은 교육 커리큘럼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잘 익혀 전원 합격의 결과를 이뤄냈다.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지난 12월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4주기 간호교육 인증 평가'에서도 '5년 인증'을 획득(2030년까지 유효)한 바 있다.

With 총학생회 임원진 워크숍 가져

“역할과 무게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나가자”

새 학기 출발을 앞두고 With총학생회(회장 유준하) 임원진 20명이 2월 6~7일까지 성수동 렌트하우스에서 워크숍을 갖고 사업 점검과 공동체 간의 격려와 단합을 모색하였다.

임원진들은 먼저 레크리에이션으로 마음을 열어갔고 FT와 개교기념 및 밀알훈련 등의 주요 사업 계획과 향후 임원진의 역할 등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준하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무게를 함께 나누고 격려해 갈 때 더욱 의미 있는 With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워크숍에 참석한 With 총학 임원진 모습 .

아름다운 학우들, 살아 있는 대학 — 이게 학교다

NSLB “우리는 한 학우도 포기하지 않는다”

교수학습센터가 이끄는 다양한 스터디 그룹들



“많은 학생들은 한 학기 성적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결과보다 과정 속에 있는 그들의 노력과 땀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박예진, NSLB 연구원**

박예진(연구원)

물에 한가롭게 떠 있는 오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 발은 끊임없이 움직여서 헤엄을 치고 있다. 학업이 어려운 옆 친구를 돕는 아름다운 학우들, 친구들과 협업으로 목표를 이루어 가는 작은 공동체들, 공강 시간, 등하교 시간 등 1분의 찐투리 시간을 아껴 학업에 열중하는 학우들 -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학을 떠 있게 하는 힘은 그들의 끊임없는 물갈퀴질일 것이다. 이번호에는 5개 그룹을 소개한다.

NSLB 마라톤 프로젝트



박윤미(사복2)

NSLB 마라톤 프로젝트는 개별 맞춤형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우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점검과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 2024학년도에 15명이 시작하였는데 9명이 활동을 마쳤다.

박윤미(사복 2) 학우는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직접 만나 학습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유익했다”고 말하였다. 박윤미 학우는 1, 2학기 모두 성적 향상에 성공, 우수등급을 받았다.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디자인 씽킹은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실제 적용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24학년도에 12개 팀 52명이 참여하였다. 최우수상은 『쓰레기통 넘친 문제 해결 방안』을 풀어 낸 **Rise**팀(양한나, 김시진 사복2, 박윤미, 김영서 영보2) 이 받았다.

양한나 학우는 “주변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창의적인 고민과 실천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아두이노 센서와 3D펜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도구들을 활용해 본 것도 큰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양한나(사복2)



김영서(영보2)

학업(學UP)공동체

학업(學UP)공동체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한 학기 동안 선택한 과목을 함께 공부하는 그룹형 스터디 프로그램이다. 정기적 모임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스터디 유형은 **열풍타, 투별, 같은과목** 3가지로 운영한다. 열풍타는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는 애플리케이션의 줄임말. 24-2학기에 46개 팀 118명이 참여하였다.

우수팀은 **투별의 '동그란 별'**이었다. 우수 학우는 컴소 3학년 김인형과 김한별 학우이다. 김한별 학우는 "처음에는 혼자 학습하는 것이 더 좋았지만, 함께 공부하면 서로 질문하고 모르는 내용을 함께 탐색하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인형(컴소3)



김한별(컴소3)



짜투리 스터디

짜투리 스터디는 하루의 일과 중에 남는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한 주 동안 짜투리 시간을 모아 총 3시간 이상 학습해야 하며 이를 6주간 지속해야 활동 완료로 인정된다. 24-2학기에 65명 참여, 활동 완료자는 42명이다. 학과별로는 영보 14, 간호 11, 컴소 10, 성서 5, 사복 2명이다.

정명국(컴소2) 학우는 "짜투리 스터디 활동을 해오다 보니 꾸준한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강지우(간호 2) 학우는 "이전에는 휴대폰만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일지라도 꾸준히 활용하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명국(컴소2)



강지우(간호 2)

NSLB 러닝메이트(Learning Mate)

NSLB 러닝메이트는 동료 학우와 1:1 또는 그룹 멘토링을 진행하라는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멘토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대학 생활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만학도, 외국인, 장애 학생 등 소수 집단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학습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주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2학기에 멘티 25명(만학도 4명, 외국인 12명 포함), 멘토 15명이 함께 하였다.

박서연(사복 4) 학우는 "내 일상에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도 대화를 해본 적도 없었다. 처음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즐거움과 기다려짐으로 변해갔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대견했다"고 말했다. 멘티였던 응웬티타오(사복 1) 학우는 "멘토가 학업을 많이 도와주었다. 또 몽골에서 온 친구와 그 친구의 멘토도 함께 하여 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서연(사복 4)



응웬티타오(사복 1)

김남순 동문 등 8명 목사 안수

한국성서선교회 목사 임직식

현희철 목사

“성도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역할”



▲ 한국성서선교회 목사 임직식 후 기념사진 .

한국성서선교회(총회장 현희철 목사)의 2025년 목사 임직식에서 김남순 동문 등 8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임직식은 25일 본교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들은 임직식에서 “부르심에 따라 목자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주의 교회 앞에 최선을 다해 경건함과 모범을 보이며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서약하였다. 이승찬牧사는 안수자 대표로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인사하였고 르엔티튀짱 목사의 축도로 종료되었다.

이에 앞서 현희철 목사는 ‘성소에 들어갈 때’(출28:29) 말씀을 통해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목회자들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전했다. 임직식은 최정권 총장의 축사와 김재명(월계성서교회) 목사의 권면으로 막을 내렸다.

임직받은 목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김남순 ▲ 김병수 ▲ 르엔티튀짱 ▲ 오명이 ▲ 이동산 ▲ 이승찬
▲ 이해성 ▲ 전성순

학부모기도회 신임 회장 추영철 씨

“기도와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학부모”



▲ 신임 회장 추영철 씨

2025학년도 학부모기도회 신임 회장에 추영철 (추수범 성서1의 아버지)씨, 서기 이해란(김윤하 시학부 1)씨가 선출되었다. 추영철 회장은 “중책을 맡아 부담이 있지만 자녀의 구원과 학교 발전을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학부모들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학부모기도회는 코로나로 그동안 중단 되었는데 교목실 주선으로 지난 2월20일 결성 모임을 가졌다. 학부모, 교직원 등 17명이 참석하였다.

정기 기도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시 40분이며 첫 모임은 3월 20일 복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문의 전화 950-5540

성서학과 권용준 교수 신규 임용



▲ 권용준 교수
(성서학과)

성서학과에 권용준 교수가 신규 임용되었다. 신임 권 교수는 영남대 작곡과,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거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The University of Stellenbosch에서 예배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총신대 외래교수 및 수영로교회 부목사로 사역해 왔다.

권 교수는 임용 소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대학에서 일하게 되어 감사하다. 옳으면서 더 온유한 생각, 넓게 보면서 동시에 더 정확하게 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학생과 학교를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후회하심이 없도록 말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학우들을 사랑하는 고마운 손길들

개학을 앞두고 학우들의 식비 등 교육 복지를 위해 써달라는 큰 후원이 잇따르고 있다. 재미 실업가 황규만 씨는 최정권 총장이 로스엔젤리스에서 인도한 부흥회에 참석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거금을 보내왔다.

재미 동포 황규만 대표 5 만 달러 (7 천 2 백여만 원) 후원 “학우들의 식비 지원에 사용해 달라”

재미 동포 황규만 대표가 우리 대학 학우들의 식비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미화 5만 달러(7천 2백여만 원)를 후원해 주었다. 황규만 대표는 “복음전도자를 지향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 써달라”라고 말하였다.

황 대표는 LA, 샌디에고 달라스 등 6곳에서 대형 유통점 시온마켓(Zion Market)을 운영하며 미국 사회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다.

수영로교회 3 천만 원 후원 “학우들이 주의 복된 제자로 거듭나길”

수영로교회(담임 이규현 목사)가 학우들의 식비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우리 대학에 3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규현牧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전도자를 양육해 온 소중한 한국성서대학교”라며 “모든 학우들의 영육이 더욱 왕성해져 주의 복된 제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975년 부산 해운대에 설립된 수영로교회는 ‘말씀중심, 은혜중심, 선교중심’을 목표로 믿음의 새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산과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다.

김동관 목사 1 천만 원 미주 동문 1200 달러 후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동관 목사(수원 안디옥교회 담임, 29회)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김 목사는 “후배들의 교육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와 별도로 김 목사는 지난 1월 미국을 방문, 동문들이 모금한 1200 달러를 학위수여식에서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성서대학교교회 (반세호 목사) 1 천만 원 후원

성서대학교교회(담임 반세호 목사)가 학교 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1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반세호 목사는 “성서대학교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함에도 설립 이래 추구해 온 복음전도자 양육 의지는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더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정권 총장



총장실 의자에 앉아

총장의 편지

총장실의 의자에 앉아 창문 밖 캠퍼스를 바라보면
서 25년도 봄학기 시작과 함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치열한 신입생 유치 과
정에 인원이 가장 많은 성서학과와 모집, 새로 신설
된 AI융합학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의대 증원에서 오
는 기존 학부의 경쟁률 저하 등 생각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은 입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나 선하시고 옳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설
립한 학교와 그 안에서 살아갈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좋은 학
생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하신 입
시팀과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총장인 저는 올해 두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의 해'이고 성경은 우리 학교
의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채플과 생활관 기숙사 새벽
예배와 기존의 성서학과 BRC(BS BRC), 신설된 AI융
합학부의 BRC(AI BRC)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8시에 갖는 BS BRC는 한 학생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 대학의 NSLB 교육철학을 따라 힘들어하
는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9시에 시작하는 AI BRC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일을 진행할 강규성(AI) 부총장님과 조
현진, 최사랑(BS) 교수님 그리고 먼저 이 길을 걷고
은혜받아 섬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들
을 위해 격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대학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번
에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해서 떠나
는 총장님과 새로 오는 총장님의 이임사와 취임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떠나는 분과 오는 분의 메시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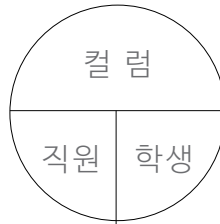
그렇게 비슷한지 무슨 말을 해도 총장의 언어는 모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대학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이임하는
총장님도 취임하는 총장님도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사
립대학의 총장님도 대학 재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달 조선일보에 의하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
교 등 지역 대학들이 재정난을 견디지 못하고
대학통합의 이름으로 통합하면서 8개의 지역
대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학 재정의
위기는 저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행히 저희는
부채를 지고 사는 사립대학의 현실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빛이 없는 대학이 되었
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학교 재
정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예산 방향을 수입 기반 대
비 지출 구조를 요구했고 기획실과 사무관리팀은 이
부분이 반영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총학과 논의 과
정을 거쳐 십 수년간 묵였던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습
니다. 기도 제목은 재정의 보릿고개가 없는 한 해, 그
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안전시스템을 확고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팀의 기부금 모금을 위한
당위성과 목적을 명료하게 하고, 학교의 비전을 향한
기부금의 증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
제교류센터와 한국어교육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
해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 밀알 정신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우리 대학
의 존재가 빛과 소금으로 한반도에 남기를 기도합니
다. 감사합니다.



정지용 직원(주차관리실)



이예은(사복 2)

떠남의 설렘

올해 설 명절은 전국이 폭설로 몸살을 앓았다. 유난히도 긴 연휴가 올해의 설, 우리 가족은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바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완전 즉흥, 극 P의 성향인 나는 떠나기 1주일 전 목적지를 정한 후 숙소 예약을 하였다. 계획에 없던 여행을 준비하고 막상 숙소까지 잡으니 설레기 시작했다. 성수기인 터라 장시간 운전과 또 여행 경비가 부담은 됐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날씨가 북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출발과 동시에 눈발이 날리더니 구름이 낀 흐린 날씨. 그런데 기적이 찾아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은 그야말로 푸른 하늘색이었다. 여행 기간 내내 좋은 날씨와 풍경을 보며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떠난다는 설렘,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심장을 뛰게 한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떠나지 못하게 불행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여행은 잠깐이지만 다시 일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는 불행한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사람만 아니면.' 우리는 저마다 떠나보내고 싶은 상황이 있기 마련이고 떠나보내지지 않을 때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긴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과 우울감에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은 괜찮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다.

요즘같이 혼란한 분위기 안에서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며 마음이 아프다. '부자가 되면 해결될까? 이만을 가면 안정된 사회를 맞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해 본다. 어쩌면 '떠남'의 의미보다 '도피' 영역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면 긴 여행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행에는 많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묘미 중의 하나가 또 변수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여행만큼 불안한 상황도 없지 싶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행을 포기할쏘냐! 이런저런 상황과 맞닥뜨리며 즐겁게 여행하듯 삶을 조금은 거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면 설렘 가득한 인생 여행이 될 것이다. 떠나보자! 인생 여행!

감사하는 삶

여러분은 '감사'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손경민의 '감사' 찬양 가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저희는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한 것을 주시지 않는 주님에 대한 원망, 이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등을 말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요 기도회에서 '감사'라는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 주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으며, 작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예비하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것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는 '감사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며 위안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갖지 못한 것과 없는 것 가운데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칼럼을 작성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반세호의

목양칼럼



반세호 목사
(성서대학교교회 담임)

생명이 깃든 겨울꽃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나뭇잎은 떨어지고 들판은 황량해지며, 생명의 온기는 점점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계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도, 얼어붙은 땅 위에서도 묵묵히 피어나는 그 꽃들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전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어떤 환경에서도 꽃은 필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꽃 중의 하나가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추운 겨울바람과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기어이 꽃망울을 터트리게 됩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내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겨울꽃인 수선화는 차가운 땅을 뚫고 올라와 새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 줍니다. 이들은 겨울이라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꽃을 피우며 생명이 주는 감동을 선사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겨울과 같은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시선, 외로운 길, 거센 풍파가 우리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닌, 곧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를 품은 자는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겨울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바깥세상이 얼어붙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꽃은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고난이 오히려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삶까지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삶에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28

모든 산을 오르며

작곡 Richard Rodgers, 작사 Oscar Hammerstein II

마리아, 이곳은 문제를 숨겨두는 곳이 아니야.
문제들과 맞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

“모든 산을 오르며
높고 낮은 곳을 헤매고
여러 길을 걸어도
알 수 없어요
모든 산을 오르며
여러 강줄기를 따라
무지개를 좇아요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너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네가 사는 모든 삶 속에 있어
네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산을 오르며
여러 강줄기를 따라
무지개를 좇아요
너의 꿈을 찾을 때까지”

영화 The Sound of Music 중에서 〈Climb every mountain〉



<https://jsksoft.tistory.com/561443>

〈The Sound of Music〉은 나치의 지배를 피해 조국을 떠나 망명했던 트랩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화이다. 이중 ‘모든 산을 오르며’(Climb every mountain)는 트랩 대령을 피해 수녀원으로 숨어버린 견습 수녀 마리아에게 ‘문제들과 맞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원장 수녀의 조언이 담긴 노래이다. 원장 수녀는 특히 ‘이성 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없애는 건 아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서 돌아가도록 해라. 너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네가 사는 모든 삶 속에 있다’라며, 네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산을 오르며 여러 강줄기를 따라 무지개를 좇으며 꿈을 찾으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숨겨두지 말고, 문제들과 맞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든 산을 오르며 높고 낮은 곳을 헤매고 여러 길을 걸어도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산을 오르며 여러 강줄기를 따라 꿈을 찾는다면, 마침내 우리는 문제의 답에 닿아 있을 것이다.

따라하기 _ 청중은 관심없다 최정권



지난달 한가람 미술관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고흐의 그림은 '교회 안에서'(In Church)였습니다. 한때 목회자를 꿈 꾸었던 고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의 그림 속에 나타난 교회들은 주변을 밝혀야 할 빛이 꺼지고 주변의 암흑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린 교회 안 청중의 모습도 설교자의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그림을 목양실 복도에 붙여 놓으면서 언젠가 이 그림의 원본을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밝고 화려한 색을 가진 그림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재는 어둡고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이 한자리에 들어가 있기는 좁은 공간이었고 공간의 여유 없이 만원 버스에 탄 느낌을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연필로 스케치를 한 후에 펜과 잉크로 덧칠하고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 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색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전시된 그림들은 고흐

가 후기 인상주의로 가기 전에 사실주의 관점에서 그린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씨뿌리는 농부'와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이 어둡고 칙칙하게 보인 수채물감 그림들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어떤 화가보다 고흐의 전시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동안 다른 전시회에서 볼 수 없던 초기 작품들을 보며 많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전시회 다녀와서 처음으로 고흐의 그림을 따라 그려 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린다는 것이...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인물을 제 손으로 제 느낌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그림 속 인물 중에 고흐가 연민을 느끼고 사랑했던 시엔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를 손에 기대고 힘들어하는 앞줄 여자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힘든 한 주의 삶을 보낸 이들의 영혼에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장관 표창



대학이런이런

교육부장관 표창 ‘개정 표준보육과정 연구’ 공로

지난 12월 31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준보육과정은 만0~5세 영·유아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 공통적인 보육 목표와 내용을 말한다. 우리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0~2세)의 개정 프로젝트 중 ‘모든 영아의 행동 및 지원 사례 연구’에 참여하였다. 2024년 표준보육과정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교직원들은 8시간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사들은 개정 프로젝트에서 참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뜻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감 있는 교사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민음반 변송이 교사]

노원연세제일치과와 아름다운 이웃 후원 협약



대중복합문화공간

노원연세제일치과와 ‘아름다운 이웃’ 후원 협약

5일, 노원연세제일치과(원장 안철준)와 ‘아름다운 이웃’ 후원 협약을 맺었다. 내용은 노원연세제일치과의 전문적인 치과 치료 및 진료 제공을 통해 월계 2동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 복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안 원장은 “지역에 보탬 되고자 복지관의 ‘아름다운 이웃’에 참여했으며 저소득 주민들 구강 건강과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이웃’ 사업은 지역상점, 학원, 동네의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을 돕고, 주민들이 홍보하는 ‘서로 돕는 공동체’를 목표로하며 관내 17개 복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직팀 이동재 사회복지사]

제 32 회 졸업식에 참여한 유아들의 모습



문화이런이런

제 32 회 졸업식

21일, 제32회 졸업식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졸업생 외에 수료하는 영유아도 참여해 떠남과 새로운 출발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김신덕 원장은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준 것이 고맙고 앞으로도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라며 감사와 사랑 담긴 축사를 전했다. 동생반은 형님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복음 성가를 수어로 불러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추억의 영상 감상을 가졌는데, 학부모들은 성장 과정에 눈시울을 붉히며 즐거움과 감동이 교차 되는 진한 추억을 새겼다.

[목련반 호한나 교사]

뮤지컬 오병이어 관람을 대기 중인 초등부원들



성서대학교회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초등부는 15일 연합 겨울성경학교로 광야아트센터(강남구 청담동)에서 뮤지컬 ‘오병이어’를 관람하였다. 크리스천 문화 관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익혀갈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아동들은 뮤지컬을 관람하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할 때 모든 것에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확인해 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19일 주일에는 초등부 연합예배로 김은숙 전도사가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초등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실천하는 믿음의 어린양 되기를 다짐하였다.

[박효민 목사]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의 무대를 구경하는 유아들



상계백영원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

13일, 서울숲 씨어터에서 진행 중인 뮤지컬 '장수탕 선녀님'을 관람했다. 6살 덕지와 선녀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펼쳐가는 이야기이며 그림책으로 알고 있던 아이들은 뮤지컬 관람에 큰 기대를 보였다.

공연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극에 몰입하며 선녀님이 장수탕에서 살게 된 이유와 지상으로 내려온 사연 등 그림책에 나오지 않은 스토리 전개에 흥미를 보였다. 관람을 마친 후 옛날 목욕탕을 재현한 공간과 공중에 떠 있는 덕지와 여러 조형물도 구경하였고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관람 소감을 나누며 잊지 못할 경험에 대해 아쉬움을 남겼다.

[맑은반 국민지 교사]

도담도담나눔터의 내부 모습



노원구아동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나눔터 운영 확대

4일부터 '상계8동 도담도담나눔터'와 '하계1동 도담도담나눔터'가 화요일~토요일로 시간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시간 변경은 아빠들의 참여도를 높여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의 장을 제공해 주기 위해 조정하였다.

이곳은 관내 7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에게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 돌봄 공간이다. 놀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아이들의 신체와 두뇌 발달을, 부모에게는 소통과 육아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루 3회(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시 30분) 2 시간씩 진행되며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용 할 수 있다.

[성은경 보육전문요원]

빛가온 교회에서 진행된 14 회 졸업식



상계5동어린이집

제 14 회 졸업식

21일, 제14회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가족 외에도 졸업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후배의 새 출발을 선배가 격려해 주었고 교사들도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졸업반을 향해 축복과 감사의 따듯함을 전해 주었다.

개원 이래 14년간 세 자녀를 보낸 두 가정이 참여해 각별함을 더했는데 어엿한 고등학생으로 자란 졸업생을 보며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앞으로도 보듬이나눔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기를 기도하며 보육할 것이다. [온누리반 강혜진 교사]

파티룸에서 진행된 졸업식에 참석한 유아들과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파티 룸 졸업식

21일, 파티 룸에서 1,2부 졸업식을 하였다. 1부는 졸업생들이 추억을 되새기는 여정과 함께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다. 참여한 부모와 교사들은 성장 과정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져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2부는 수영장에서 수영과 함께 친구들과 추억 만들기 물속에서 뛰어놀며 우정을 돈독히 다지는 시간이 됐다.

졸업생들은 이날을 특별한 순간으로 간직하겠다고 부모님과 교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어린이집과 함께 한 시간을 기억하겠다고 말하였다.

[신나는반 장아영 교사]

아동들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자율주행을 즐기고 있다.



레이크지아이동센터

드론, 자율 주행 코딩 체험

18일, 아동센터 소속 17명(3~6학년) 어린이들이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앤드센터]에서 드론과 자율주행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자율주행 코스 제작과 자율주행 블록 코딩을 체험하였고 드론 미션과 상향별 시뮬레이션에 따라 드론 조종도 수행하였다.

아동들은 드론과 자율주행이 미래 인간의 삶에 큰 변혁을 가져올 핵심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고 강의에 적극성을 띠었다. 교육이 아동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진로 탐색 지원 및 꿈을 향한 창의적 플랫폼을 경험케 한 시간이었다. 드론과 자율주행 체험이 유익한 경험이었다며 지식 탐색과 배움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아랑 센터장]

「성서대학동기운동」기부현황

www.bible.ac.kr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동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5년 1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노아스 방주	4285만원(운영)	경성교회(박종길)	200만원(장학)
수영로교회	3000만원(운영)	강우정.강진(법인이사장)	179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반세호 목사)	2668만원(운영)	미주동문	170만원(운영)
오에스더(설립자 가족)	1422만원(운영)	오은성(재미동포)	139만원(운영)
김동관(29회)	1010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충현교회	1000만원(운영)	정휘진(법인사무국)	100만원(운영)
성음문화재단	300만원(장학)	노원가독교연합회	100만원(운영)
서부장로교회	237만원(운영)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0구좌	장은정	35구좌	오동준	1구좌	진경숙
1구좌		교직원 및 가족		성서대학교회		일 반	
		1구좌	류은미	1구좌	강경혜 이대영	1구좌	김영석 송유정 최서영
		2구좌	권민주	수원교회		2구좌	이재한 이태일
2구좌		7구좌	임환석	2구좌	반요셉	3구좌	박미라
		10구좌	이성아 장인순 최은희	중앙성서교회		40구좌	박순정
		13구좌	김덕현	1구좌	김세현 최영란	단체 및 기관	
3구좌		부설기관		3구좌	김덕규	1구좌	무진인터내셔널
5구좌		1구좌	김지은 유희주	10구좌	송인숙	3구좌	꿈꾸는교회
10구좌		3구좌	구세란 오윤아	15구좌	이혜선	10구좌	구리중앙교회
재학생 및 가족		15구좌	김화영	효성교회		20구좌	인천제2교회
1구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진 이선영 이영애 이예원		재학생 및 가족	
1만원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우진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5천원	홍예지
		이선정 이수진 이신재 이영식		이의선 이재은 이종임 이충희		1만원	권명희 김민서 나예린 류가환
		이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박윤경 송지민 양은성 이다원
		이은광 이정숙 이정희 이정훈		임주영 장유정 장은경 장재원			이동기 이미숙 이성란 이성령
		이 진 이진경 이채녀 이철승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이연신 이정윤 이혜정 임동화
		이해릴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정옥순 정 완 조소정 조은별			장영정 전계화 조유리 지중배
		이혜란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최수지 최윤준 최인규 최혜진		2만원	강현중 객은래 권영진 권윤주
		임상일 임은성 임은진 임은희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김미옥 김선미 김선옥 김지영
		장동명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허춘선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김지혜 김창환 김현정 김형태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등대학교회			김효선 문혜진 박명규 박한을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3만원	고은영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송동식 송세희 신동숙 연성희
		정다연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김세린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오명미 이경민 이미영 이승진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희			박기혁 반세호 서성숙 설보경		이승찬 이은영 이정민 장영순
		정혜문 조민을 조소연 조승희			상인선 양연선 윤문순 이길순		장은정 전옥순 정인숙 조복임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주연		조율이 최경애 최영숙 최창호
		조치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이현지 임연식 전지혜 정슬기		함은애
		주진우 지영환 차나리 채유신			조신애 차주엽 최소린 최양서	3만원	박미영 박보병 배정숙 임종우
		채종원 천난희 최규봉 최서희			박현정 태지선 황영숙		전희문 최창규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좋은교회	5만원	권오길 김영자 손미연 안종현
		최윤석 최인호 최중운 최진희		4만원	박주는 배정환 신은진		이재현 정주화 황미숙
		최현정 탁국현 하수현 하 진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진경 남영란	10만원	김승례 박은정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남희경 박광필 서명주 송복순	12만8천원	임현정
		홍선호 홍성대 홍정심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부호		
		강해든이 설에스터 황보혜영			이정곤 이지는 장효정 최경환		
		열매맺는교회			최송희 가학교회		
		이예람			생명의빛교회		
		1만5천원			성서말알선교회		
		2만원			월계지역아동센터		
		강신용 고난홍 고성호 각지윤		6만원	이윤성 장영훈 정동주	1만원	강신애 객한나 권관희 김미영
		구연민 국소영 김가람 김규리		10만원	김성숙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세진
		김동원 김미나 김민경 김복녀			서광진 서수경 신지선 이정원		김재란 김유진 김종현 김지환
		김성훈 김연정 김영래 김영태			함평대동교회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김예원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유선미		박남일 박덕자 박영우 박요서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11만원	성낙표		박연지 박주영 반우형 서광철
		류종열 박민주 박상수 박성주		22만원	이례장학		양승원 유성준 이정은 이지민
		박재송 박정연 박주영 박혜숙		100만원	미주동문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소경숙 손윤숙 송만호 송인성		170만원	김동관		정현아 지수빈 허윤민
		신연정 신정섭 신화영 안선길		1010만원		2만원	요시다고조 하늘사랑
		오현주 유미영 유익숙 유광길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이기주 이나연 이마리 이상복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정지순

기부자 명단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윤혜진 이소연 추연진 4만원 김덕원 5만원 구광연 김미숙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박상민 신지수 양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성희 장정순 6만원 권순범 정지용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성경 김소희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우열 박태웅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안현미 오은주 원영희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욱열 최은희 한영수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1만원 서효정 삼일성서교회 1만원 김초롱 오성군 정혜란 한금순 서문교회 1만원 강선에 윤인호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성서대학교교회 4천5백원 위승구 9천원 고나경 김지영 박인숙 오경모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1만원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성일 1만8천원 강선영 고경숙 권은정 김동수 김문정A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인자 김일선B 김현미 김혜련 김희자 김희현 민영빈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서 훈 송형기 안복숙 양태환 용정자 유부자 윤재필 이경미 이소정 이승림 이인하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이주연 이주현 장진희 정나영 정선희 조병하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황서린 황시은	7만원 이정선 일동성서교회 1만원 심미영 유현석 2만원 박문수 3만원 왕순희 5만원 표길홍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중앙성서교회 1만원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강영애 신한성 이준구 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태규 오근수 5만원 김옥자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한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5만원 이혜선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효숙 홍성일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현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사랑 이우윤 이원주 이우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황영수 2만원 강명옥 권소영 김미금 김옥석 김동석 김상래 김윤숙 박가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태일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박미라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연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국미경 서미혜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40만원 박순정 139만원 오은성 237만원 서부장로교회 1000만원 충현교회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와식산업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코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 /예일메드컬/천성교회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도봉성산교회 /두암산업(주) /성북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봉수)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상록교회/인천제2교회 30만원 (주)주안/한민제일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100만원 노원기독교연합회 200만원 경성교회 300만원 성음문화재단 3000만원 수영로교회 4285만원 노아스 방주 소계(20250121~20250220) 178,059,656 누계(20240301~20250220) 1,034,268,332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김덕현 김웅기 13만원 김종환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20만원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반종원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100만원 정화진 179만원 강우정.강 진 1422만원 오에스더 부설기관 1만원 김은지 김지은 김하예 김효진 이유리 이은정 임재택 최미정 호한나 2만원 윤종찬 진양희 허성보 3만원 구세란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변송이 안미희 위소진 유정현 장나혜 5만원 박연희 이인경 이지연 7만원 김선화 10만원 권정아 박빛나 장수진 조지선 차도영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차 건 35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밀알교회	1만8천원 강선영 고경숙 권은정 김동수 김문정A 김사천 김상은 김성은 김성진 김성진B 김성철 김애숙 김유미 김인자 김일선B 김현미 김혜련 김희자 김희현 민영빈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서 훈 송형기 안복숙 양태환 용정자 유부자 윤재필 이경미 이소정 이승림 이인하 이정숙 이정자 이종욱 이주연 이주현 장진희 정나영 정선희 조병하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황서린 황시은 2만7천원 강경숙 김지윤 이무현 3만6천원 강유진 김덕현 김동석 김민자 김배열 김일선A 박 선 박선하 박천순 윤도진 임용택 장근문 장은정 최영태 4만5천원 김효정 박은아 선경혜 유형창 최강희 5만4천원 이숙영 이정임 7만2천원 김주아 박은경 이경신 이관영 강성훈 권경만 김용희 김원태 9만원 박세건 박은유 송민정 이은실 전명진 최대만 한진호 18만원 최순남 27만9천원 강규성 2668만원 성서대학교교회 성서선교회 2만원 금춘성서교회 3만원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성김교회 월계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세빛교회 5만원 세빛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어린이양교회 1만원 김정희 2만원 한지화 3만원 임윤창 어린이양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화도드림교회 1만원 권순실 5만원 화도드림교회 효성교회 1만원 진경숙 진효숙 홍성일 일 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명호 김미라 김법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현수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송수용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금례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사랑 이우윤 이원주 이우진 이현수 임숙자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황영수 2만원 강명옥 권소영 김미금 김옥석 김동석 김상래 김윤숙 박가숙 박명숙 박수명 박재균 서병준 서성원 안은숙 이일신 이태일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박미라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연 이천화 주은자 10만원 국미경 서미혜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40만원 박순정 139만원 오은성 237만원 서부장로교회 1000만원 충현교회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맘키즈푸드 /목양교회/무진인터내셔널 /주님손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와식산업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르코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본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 /예일메드컬/천성교회 /한일성서교회/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도봉성산교회 /두암산업(주) /성북중앙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전주서부중앙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봉수) 20만원 전하석/((주)소원기건 /상록교회/인천제2교회 30만원 (주)주안/한민제일교회 50만원 동서환경(주) 100만원 노원기독교연합회 200만원 경성교회 300만원 성음문화재단 3000만원 수영로교회 4285만원 노아스 방주 소계(20250121~20250220) 178,059,656 누계(20240301~20250220) 1,034,268,332

한국성서대학교 2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000,000원)	
수봉산교회 1,000,000원	
약정 후원자 (합계 35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4,200,000원)	
20구좌 스피릿교회(일반) / 5구좌 박상민(교직원) / 2구좌 박기숙(일반) / 박명숙(일반) / 박수명(일반) 1구좌 오찬미(동문) / 임은희(재학생) / 장동명(재학생) / 천난희(재학생)	
일시납 누계(2024.3.1~2025. 2.22) 278,850,477원	약정자 누계(2024.3.1~2025. 2.22) 38,520,000원